

자비하신 하나님, 초록의 물결이 온 산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하늘의 곡조를 노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가슴을 주님의 영으로 녹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따뜻해진 가슴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어 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소란을 피해 사막으로 들어갔던 교부들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엄평스런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바로 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 화해자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릇된 사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김윤수 박상호
박창운 허정윤 김해권 박규석 박경선 배근수 김금순 이한림 김명희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정복순 최종원 김훈동 맹은선 박어진 권미숙
박지인 허호범 김민주 오자영 조문규 진정숙

월정헌금:

김성자 김종철 고영애 송임회 이성범 이유선 방극숙 하정석 이명희
황원순 황자순 김수진 김승현 이해동 윤여민 임보람 구자훈 이경남
문홍일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이은숙 안종일 정현주 이증자 권미숙 박창운 허정윤 박병구 무명9

생일감사헌금: 오현정 **캄보디아 우물헌금:** 고유비

100주년 기념헌금 :

장영숙 한상익 정영선 김철수 김남종 오복순 구자훈 김준호 곽혜자
김영순 이동천 왕수명 이소순 이계선 8여성교회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 186,235,000원)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연합수회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문영혜	박경선	김수연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참깨를 털면서

산그늘 내린 발귀통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툰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쇠아쇠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이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김준태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적 주체로 우뚝 서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과도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삶이 힘겨워도 항상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립 기념 축제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진행 / 김재흥 목사	기도 / 한선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이형숙 집사

4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용길 이종현 박규석 최영혜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중(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유일한 나의 가치

자기가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만큼 마음이 상한 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는 과민해서 그런지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가끔은 잠조차 잘 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말살할 정도로 나를 무시한 것이나 하면 사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해 버린 몇 마디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나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혼자 생각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인 데도 이렇게까지 온종일, 아니 며칠간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다지도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 궁금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자기 중심성(ego-centricism)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심리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유아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 성인의 마음 구조에도 아직 유아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원통해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남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남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려하다가 도리어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마치 겸허한 태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나 무엇을 권유받았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반대할 때에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든지 “저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겸손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옳

게 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제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으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떳떳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생각납니다. 처음부터 열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고, 다섯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각기 주어진 능력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업신여기는 것이나 무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그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것만 기대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무시했기에 한 달란트만 주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어느 누구의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다보니 그러한 마음이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곧 그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손상을 받을 사람은 정말 가치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남이 나를 무시했다거나 해서 원통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아청, <<내가 나답게>> 중에서

사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루한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것이며,

우리의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열정을 다해 삶에 몰두하고

무슨 일을 하건 뿌리를 깊이 내린다면,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

오히려 황홀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